ISSN 2234-4349

한의학 야기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그리고
내일로 나아가는 희망찬 첫 걸음
이제 우리는 더 큰 세계를 향해 도약합니다.

2015 신년호 Vol. 23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CONTENTS

2015 신년호 VOL.23

• SPECIAL
글로벌

04 **KIOM 목소리**
신년사 & 인터뷰 – 이혜정 제8대 한국한의학연구원장
08 **한의학 세상과 통하다 1**
K-Culture,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자
10 **한의학 세상과 통하다 2**
한의약 세계속으로! 한의약의 영토 확장이 시작되다
14 **Interview**
세계의 중심에서 K-문학의 날개를 펴다, 동화작가 황선미

• DEEP
깊이 읽기

18 **Topic**
위생 · 안전 걱정 없는 신개념 부항, 무릎 관절염 뜸 치료 효과 입증
22 **KIOM Opinion**
제주에서 피어날 작은 꿈을 위해, 채윤병 경희대학교 교수
26 **R&D Report**
맥 분석시스템 개발로 동 · 서양 의료시장 노린다, 김영민 선임연구원

• WIDE
넓게 보기

28 **힐링에 머물다**
낭만을 따라 떠나는 하얀 겨울여행, 강원도 태백
34 **재미있는 한의학 상식**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와 한의학
36 **역사에서 배우다**
온돌, 한국 전통문화의 꽃을 피우다
38 **고수들의 다이어리**
겨울, 캠핑을 즐겨라

• FRESH
새롭게 듣기

42 **Zoom in KIOM ①**
재능기부로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요
46 **Zoom in KIOM ②**
"한의학 연구부터 일반 상식까지 쉽게 풀어냈죠" KIOM 소셜 기자단 2기 시상식
48 **Now In KIOM**
50 **KIOM 우체통**

작품제목 : 마음속의 풍경 **제작년도:** 2013 **재료:** 장지에 혼합재료 **작품크기:** 45.5x53.0(cm)
표지에 소개된 작품은 강미덕 화백의 작품 〈마음속의 풍경〉으로, 잔설이 남아 있는 매화동산에 나들이 나온 새들을 통해 희망을 알리는 모습을 담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의학e야기] 2015 신년호 Vol.23 www.kiom.re.kr
발행일 2015년 1월 12일(통권 제23권) **발행인** 이혜정 **발행처** 한국한의학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전민동461-24)
편집실 한국한의학연구원 홍보협력팀 Tel. 042-868-9274
편집디자인 제작 (주)줌애드 Tel. 042-624-2009 www.zoomad.net

〈한의학e야기〉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한의학e야기〉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Global

급속도로 발전한 우리 사회는 경제, 문화를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많은 성장을 이룩했다. 이제는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단순히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열망은 새로운 문화 트렌드를 탄생시켜왔고, 그 가운데는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트렌드가 있다.
오래오래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의 바람에 대해 한의학이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한의학e야기〉는 끊임없이 시대와 소통하며 성장해온 한의학의 가능성과 미래에 대해, 사회의 요구에 응답하는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연구성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K-POP을 넘어 K-Culture로 자리 잡은 한류,
이제 드라마와 영화의 뒤를 이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해외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의학인 한의학 역시 세계에 그 우수성을 알리며
한류 세계화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다.

“한의학 임상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

2015년 을미년(乙未年), 청양의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온순함과 너그러움의 상징인 양처럼 산다면 올 한해도 저마다 품은 큰 뜻을 모두 이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994년 개원한 이후 20년 동안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설립 초기 열악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한의계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금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20년을 맞이하여 우리 연구원은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로 한의학 임상 및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한의학이 되도록 역량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확립하겠습니다.

한의계가 필요한 연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연구, 국가적인 아젠다를 해결하는 연구에 집중하겠습니다. 한의약 분야 유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입니다.

둘째, 기관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겠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대구에 한의기술응용센터가 새롭게 문을 엽니다. 본원과 분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인력과 자원의 재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한의계와의 교류 ·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의 한의과대학, 한방병원, 협회와 학회, 그리고 1만여 임상가는 한의학 발전의 기반입니다. 한의계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한의계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습니다.

넷째, 세계와 호흡하겠습니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의학 세계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오는 5월에 열리는 세계 통합의학 국제학술대회(ICCMR)의 성공 개최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한의학이 국제무대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앞으로 한의계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하면서 2015년 을미년 새해인사 드립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 1. 2. 한국한의학연구원장 이 혜 정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한의치료기술** 개발, **글로벌 역량 강화**에 중점”

지난해 11월, 제8대 한국한의학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혜정 원장. 취임 후 약 보름이 지난 무렵, 인터뷰를 위해 이혜정 원장을 만났다. 업무 파악을 거의 마쳤다는 이 원장은 사실 20년 전 한의학연이 설립될 당시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그동안 평가위원, 자문위원 등 여러 형태로 한의학연을 자주 찾았고 늘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왔다. 이 원장은 ‘연구원 초기 미션을 잘 알고 있는 만큼 20년 전의 설립 미션을 일관되게 유지하며 효율화의 선진화에 방점을 두겠다’ 며 경영원칙을 내세웠다.
〈한의학e야기〉는 2015년 신년호를 맞이해 이혜정 원장의 경영철학과 포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소감과 취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취임 후 업무파악을 위해 연구원의 전체 연구 분야를 파악하고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이내에 제 임기인 3년 동안의 경영 계획인 경영성과계획서를 세워야 하는데 계획서를 통해 연구원 운영 구상을 구체화 할 생각입니다. 전통 한의학과 현대 의과학의 조화로움을 잘 일궈내야겠다는 시대적 사명감을 느낍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을 이끌어 갈 CEO로서 경영철학과 기본적인 경영방침은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인간 중심 경영철학, 즉 내부 인적자원의 연구능력 강화와 다학제간 소통과 융합의 연구 환경 조성으로 창의적이고 핵심적인 한의치료기술을 개발하고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취임사에서 추진 중점방안으로 ▲성과 창출 경영 ▲수요자 중심 연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융복합 연구 ▲개방적인 자세로 대내외 협력 강화를 강조하셨는데요. 가장 역점을 둘 부분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구원을 비롯해 많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성과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정부출연연들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 및 기관 경영을 면밀히 분석해 핵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전체적인 연구원의 자원을 파악해서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져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내외 연구자간 소통과 화합의 연구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의학연 설립 20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과 창조경제에 발맞춘 한의학연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의학연은 기존 연구 방법론의 재검토와 함께 전통 한의학적 연구자원과 첨단 의과학적 연구자원을 결합시킨 새로운 융복합 특성화 연구를 강화시키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한의계가 원하는 연구, 과학기술계가 원하는 연구, 국가가 원하는 연구를 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행복해지는 연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조경제와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연구와 소통과 화합의 선진적 연구 환경 구축 등을 통해 미래 선진 의학계의 리더십을 선점할 수월성 높은 한의학적 R&D 핵심 성과 및 기술개발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장님은 국제적인 경험을 많이 갖고 계신 전문가이시도 합니다. 세계무대에서 한의학이 가진 경쟁력은 무엇이고, 또 세계화에 대한 전략이 궁금합니다.

“최근 서양에서도 인체에 대한 미시적 관찰을 더욱 확장시킨 거시적 시스템 바이올로지 이론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 중심에 전통 한의학적 사고와 이론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세계인들의 한의학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한의학 이론의 과학성과 치료의 우수성을 입증할 기초학문 연구, 임상연구 및 관련 기술개발이 더욱 강화됨으로서 세계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중 꼭 이루고 싶은 꿈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먼저 한의학연의 효율적인 연구시스템을 확립함으로서 내부 구성원들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핵심 우수 성과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임상 한의계와 관련 대학, 산업계 등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서 미래 선진 한의학,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의학연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나아가 선진의학차원에서 스타과제를 발굴해 육성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학계의 리더가 되는 것, 세계 의학계에서 한의학에 관심을 갖고 학자들이 이를 배우러 우리나라에 올 수 있도록 세계화, 국제화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끝으로 한의계와 한의학연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 관심과 사랑으로 한의학이 이만큼 성장했고, 전 세계 어디로도 진출할 수 있는 자신감과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의학, 글로벌 선진치료기술로 한의학이 우뚝 설 수 있도록 일선 한의계와 과학기술계, 한의학연구원은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관계부처의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국민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글 최희수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K-CULTURE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열자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류

2014년 12월 11일 관세청은 제72차 세계관세기구(WCO)정책위원회 때 우리나라의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인 UNI-PASS의 수출과 관련하여 브라질 등 개발도상국들과 협의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국제관세환경의 변화와 IT기술의 발전을 적극 수용하여 개발된 우리의 관세행정정보화 노력이 세계 시장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행정한류의 적극적인 전개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UNI-PASS는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유럽 등에서 이미 도입했거나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내지 도입 검토단계에 있다.

한류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드라마와 대중가요를 중심으로 생각한다. 그것은 한류의 시작이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가수 HOT의 노래들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도 드라마 〈대장금〉, 〈겨울연가〉, 〈주몽〉, 가수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싸이 등을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가 널리 퍼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한류는 대중문화를 벗어나 전혀 다른 분야 – 예를 들면 의료, 행정 등 –에서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류의 진행과정은 1990년대 후반 중국에서 시작되어,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후 동남아시아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중앙아시아 등 아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유럽과 중남미 등 다른 지역에까지 세계적인 확산 추세를 보여 왔다. 초기 동북아지역 중심의 한류시대를 한류 1.0시대, 동남아 및 아시아 지역 중심을 한류 2.0시대, 이후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시기를 한류 3.0시대로 부른다. 이처럼 지난 30여 년간 한국의 문화는 세계인들에게 널리 퍼졌다.

지속적으로 펼쳐진 한류의 흐름을 두고 과장된 성과라든지, 안티 한류의 등장으로 인한 문화적 갈등의 초래라든지, 확산가능한 문화콘텐츠의 부족으로 인해 조만간 소멸될 것이라는 전망들이 있어왔다. 즉 초기에는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가치 판단과 더불어 한류 이전 아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던 일본의 만화와 홍콩의 영화 사례를 들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류는 K-Culture라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세계 인터넷 최강국다운 문화콘텐츠의 확산

한류 확산 배경 가운데 하나는 한류 향유국의 문화콘텐츠 수준이 우리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현재 세계적인 문화콘텐츠 최대 강국은 여전히 미국이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탄탄한 산업적 기반과 아울러 IT 기술과의 접목을 토대로 콘텐츠 강화라는 확고한 전략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이라는 한류 최대의 시장 또한 날로 문화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장예모 감독의 각종 실경뮤지컬들은 중국의 각지에 산재해 있는 역사문화를 기반으로 튼튼한 차별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면서 오히려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한류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신기록을 세우면서 세계무대로 진출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나, 한동안 혐한류 분위기 속에서 주춤했던 중국의 한류 열기를 되살려 놓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등이 한류의 지속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 두 가지 모두 디지털기술과 네트워크라는 인프라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세계 인터넷 최대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문화콘텐츠와 접목시켜 한류의 확산을 견인한 좋은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있다. 그것은 한류를 계기로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가 매우 낮다는 점이다. 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관심사를 콘텐츠화하고 비즈니스모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의 현대화를 통해 열어가는 한류 4.0시대

문화콘텐츠산업에서 콘텐츠와 스타에 대해 소비자들이 갖는 관심은 곧 경제적 가치와 직결된다. 스타에 대한 관심은 화장품과 미용, 성형, 패션 등 연관 산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게 된다.

초기에는 한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나 가치 판단과 더불어 한류 이전 아시아 문화콘텐츠 시장을 장악하던 일본의 만화와 홍콩의 영화 사례를 들어 길게 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우려와는 달리 한류는 K-Culture라는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아울러 〈별에서 온 그대〉에서 여주인공의 치맥타령은 중국에 때아닌 치맥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즉 식품, 생활용품, 자동차, 주택 부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곧 연관 산업 간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현재 한류 생태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임을 의미한다. 아울러 우리만의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국의 스타일, 한국의 전통문화를 지속적으로 현대화하고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에서 나온 말춤이 비전되던 불교계의 무술에서 차용했다는 기사는 해프닝이지만 의미심장하다. 즉 전통문화 속에서 현대의 대중문화와 접점을 찾아내어 우리만의 스타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한때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던 한식, 한옥, 한지, 국악, 춤, 한국학, 한의학 콘텐츠를 다시 현대화된 우리만의 것으로 되살려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국의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월트디즈니처럼 다른 국가와 민족의 소재를 발굴해서 자기들의 콘텐츠로 만들어내는 글로벌기업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제반 분야 간의 협업을 통한 한류 비즈니스 모델의 강화, 그리고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한 전통문화의 현대적 발굴,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한류 3.0의 시대를 넘어서는 한류 4.0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글 이준혁 한의학정책연구센터 팀장

1

한의약 세계속으로!

한의약의 영토확장이 시작되다

2

다른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의학 또한 각 지역별로 발전해왔다. 학문의 전파, 민족의 이동 등으로 영향을 주고받긴 했지만, 그 영향은 매우 긴 시간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속도가 달라졌다. 정보기술의 발달은 시공간을 단축시켰다. 이미 현대의학은 학술논문을 통해 상호검증과 객관화를 거치고 있다.

전통의학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각국의 전통의학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비교되고, 영향을 주고 받는 시대가 되었다. 한의학은 단순한 의학을 넘어서 우리 민족의 음식과 언어 등 모든 영역에 투영되어 있는 문화이다. 드라마, 음식, 상품 등 한류의 세계화는 한의학이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한의학이 세계로 진출한다면 한류의 세계화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의약, 세계화의 적기를 맞이하다

1990년대 정부부처 내에 한의약 관련 부서가 생기고 나서 한의학은 과학화, 산업화, 세계화라는 3가지 큰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수립해왔다. 한의학 진단과 치료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정부는 90년대 후반부터 한의학 R&D에 대한 투자를 시작했으며, 2003년도 제정된 한의약육성법과 이를 토대로 마련된 1, 2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한의약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가고 있는 국내시장에서 어떻게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지에 대한 세계화에 대한 논의는 과학화, 산업화라는 선행조건의 해결을 전제로 뒤로 미루어져 왔다.

하지만, 세계적인 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 또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FTA 등 국제적인 협약들로 인해 국내의 시장과 전통자원이 위협받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세계표준기구(ISO)에 중의학 기술위원회를 설립하여 중의학을 세계 전통의학의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세계중의약학회연합 등 해외에 있는 중의사들을 조직적으로 규합하고, 국제보건기구(WHO)의 전통의학 부서에 중국 인사들이 진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통의학에 대한 동북공정 또한 적극적이다. 한국 한의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사상의학까지 중국 소수민족 의학으로 중국에 흡수할 기세다.

이제는 한의약의 세계화를 더 늦출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한의약이 이원화된 의료체계 내에서 고유의 모습을 가장 잘 지니면서 발전해 왔다고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전통의학 보건의료시스템 중 가장 발전된 체계로 국제보건기구에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에는 세계 속에서 경쟁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내기 어렵다. 세계 속으로 진출해야 한다. 때마침 정부도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부터 한의약 세계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하자면, 정부는 한의학의 세계화에 대해서 한의학의 유·무형의 고유가치를 보호하면서, 한의학의 문화, 제품,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확산시켜 인류 보건의료와 문화발전에 공헌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는 한의약의 지식과 자원을 보호하고, 해외로는 한의학의 제품·서비스와 문화를 진출시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한 인력, 정책, 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삼고 있다. 전체적인 그림은 잘 그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장기적인 의지가 중요할 것이다. 세계화 실행계획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와 정부가 세계화의

1. 한의약 세계화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한 비전 선포식이 9월 15일 개최됐다 2.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축사 모습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한의학의 세계화는 다른 분야와는 다른 특징이 있다. 국가별로 면허체계가 다르고, 전통의학과 관련된 의료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민간과 정부의 유기적인 결합이 다른 분야에 비해 매우 중요하다. 또한 국가별로 진출 전략이 달라져야 하므로 보다 세심한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미 활발히 진출해 있는 다른 한류분야, 드라마, K-POP, 한식, 한글교육 등의 분야와의 연계도 고려해봄직하다.

우리 연구원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한의약세계화추진단을 유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의학정책연구센터에서는 2012년부터 한의약 세계화사업을 기획하였으며, 이 사업은 2013년도에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다. 이듬해 약 1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되어 본 사업이 시작됐다. 2014년은 세계화사업의 원년으로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동시에 향후 사업들을 위한 준비도 같이 진행됐다. 향후 세계화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한의학 세계화 VISION 2023 선포식을 진행하는 동시에 2023년까지의 실행전략을 수립하였다.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우선 3개 권역으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슬로바키아로 이어지는 유라시아 권역이다. 지난해, 한의약의 유라시아 진출을 위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공동포럼을 추진했다. 유라시아 지역은 대한한의사협회에서도 전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략적인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단국대학교와 함께 슬로바키아의 대학에서 한의학 교육과정을 정규과정으로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일본, 베트남, 스리랑카, 호주 등으로 이어지는 동아시아-아세안 권역이다. 작년 일본에서 개최한 동의보감아카데미가 성황리에 진행되면서, 일본에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 올해는 일본에서 한방의학을 임상에 사용하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베트남, 스리랑카의 경우 전통의학을 활용한 ODA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강증진모델을 베트남의 병원에서 활용함으로써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는 북미권역이다.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개 권역 진출을 위해 올해부터는 한의약 표준화사업, 한의약 국제 교재개발, 온라인교육프로그램개발, 해외진출지원센터 등 여러 사업들을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

아직 한의학이 중의학보다는 인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중의학은 이미 세계 곳곳에 인력이 진출해 있다. 국가마다 중의사협회들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해외의 전통의학 제도를 본인들에게 맞추어 나가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한의학의 세계화도 늦지만은 않았다. 한류를 통해 높아진 한국의 브랜드를 통해 우리는 세계로 진출할 것이다. 세계 곳곳의 한식당 메뉴판에 한의약에 대한 설명이 놓일 것이고, 세종학당에서는 교재 내용에서 한의약을 소개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우수한 전통의약제품들은 세계로 수출될 것이며, 2023년에는 한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의과대학을 해외에서 보게 될 것이다. 한의약 세계화 사업을 통해 한의약의 의료가치가 세계인에게 전달될 것이다.

6

3. 일본 동의보감 아카데미 포스터 4, 5.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한의학포럼 6. 일본 '동의보감 아카데미 한의학 특강'은 한의약 세계화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3

4

5

인터뷰
–
글 박진아 사진 최재식

동화작가
황 선 미

세계의 중심에서

K-문학의 날개를 펴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영국의 서점 워터스톤즈(Waterstones)가 뽑은 2014 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

한류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K-POP 부럽지 않은 K-문학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4런던국제도서전에서 한국은 주빈국이 돼 10명의 한국 작가 연혁과 작품세계를 소개하는 특별전이 열리기도 했다. 오랜 노력 끝에 영미권은 물론 중동과 북유럽 등지에서도 한국 작가들의 책이 출간되며 그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 K-POP과 K-드라마에 이어 새로운 한류 콘텐츠로 떠오르기 시작한 K-문학. 그 중심에 황선미 작가가 있다.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관을 담아내다

2014년 3월 영국에서 희소식이 들려왔다. 황선미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 영문판이 100년 전통의 서점 '포일즈(Foyles)' 런던 워털루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2014런던국제도서전에서 황 작가는 '오늘의 작가'에 선정되어 주요 지하철역과 서점에 책이 진열됐다. 보수적인 영국 서점에서 한국 작가 작품이 베스트셀러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러한 성과들은 황 작가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문학의 가능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고집스럽고 자존심이 센 유럽국가에서, 그것도 세계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영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황 작가는 "나 역시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웃는다. "영국의 출판사나 저널에서 요인을 분석해서 보도한 적이 없어서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느 저널리스트가 〈마당을 나온 암탉〉의 엔딩이 유럽의 정서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영국에서는 그런 엔딩을 생각할 수 없는데, 아주 독특하고 색다른 엔딩이 이색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작품이 인기를 얻은 요인의 전부는 아니

겠지만, 유럽과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문화관이 한 몫을 했을 거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K-POP이 한국 문화를 많이 전파하며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드라마가 해외에 소개되면서부터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는 한국의 패션문화, 거리문화 또 음식문화까지 다양한 문화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외국의 한국학과 학생들에게 직접 들은 것이라는 황 작가. 해외 학생들에게 드라마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는데 있어 가장 흥미롭고 재미있는 콘텐츠다.

반면에 문학은 오래전부터 해외 진출을 위해 노력했지만 비주얼적으로 많이 드러나는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K-POP이나 드라마보다 그 속도가 조금 더딜 수밖에 없다.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데 있어 노래는 노래로서의 또 드라마는 드라마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학 역시 마찬가지고요." 비록 퍼포먼스 적인 부분이 적다보니 그 속도가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문학만으로 전할 수 있는 문화가 분명히 있다고 강조한다.

해외판 〈마당을 나온 암탉〉 표지에는 각 나라의 특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왼쪽부터 프랑스, 그리스, 브라질)

호기심과 사람에 대한 관찰을 통해 탄생되는 작품

작품을 쓸 때 그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사람'이다. 상처받은 어느 인물에서 출발해 그 상처의 원인이 무엇인지 보듬고 위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황 작가는 "동화작가라고 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만을 생각하며 글을 쓰지는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많은 사람들이 동화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해 글을 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동화 역시 문학의 한 범주에 속합니다. 시나 소설과 같은 문학의 장르예요. 시와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 특별한 독자를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저 역시 아이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를 위해 글을 씁니다. 다만 제 작품은 어린이도 독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 소설과 다른 점이겠죠."

살아가면서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경험이 그에게 작품을 위한 영감이 된다. 최근 그에게 가장 좋은 에너지를 주는 것은 자연이다. "남편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시골에 자주 내려갑니다. 도시에 나와 글을 쓰다보면 자꾸 시멘트 색이 묻어나는 글을 쓰게 되요. 그런데 자연을 보고 있으면 잊어버렸던 정서가 돌아옵니다." 식물이 싹을 틔우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른들도 어린아이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도시에서 살아가면서 어린아이 같은 시선을 갖기가 어려운데, 시골에 가면 잠들어있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살아나 작품을 쓰는데 있어 굉장히 좋은 에너지가 된다.

"사실 제가 호기심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환경문제, 식량문제, 자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은데 출판사 쪽에서는 시큰둥하네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무척 중요한 것들이지만 기획없이 동화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황 작가. 앞으로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인 만큼 미래를 책임지고 나갈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호기심으로부터 탄생된 작품이 바로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모르는 동서남북 우리 땅"시리즈다. DMZ, 독도, 그리고 최근 발표된 〈우리들의 보물섬 제주도〉까지.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땅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동화로 쉽게 풀어내고 있다. "DMZ에 가보고 싶었어요. 꼭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가야하는지, 안전한지, 또 가는데 조건이 필요한지 알고 싶었고, 알리고 싶었는데 마침 뜻을 같이하는 출판사가 있어 작품을 기획해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시리즈의 네 번째 편으로 백두산을 준비하고 있다. 춥지 않을 때에 직접 백두산을 방문해 작품에 대한 구상을 할 예정이다.

문학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다

최근 브라질에서 개최된 문학축제에 참여하고 얼마 전에 귀국했다는 황 작가. 책읽는 문화가 활성화된 상파울로의 모습도 기억에 남지만 무엇보다도 무법지대로 알려진 파벨라에서 진행한 행사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한다. "파벨라는 범죄조직이 장악하고 있는 슬럼가인데 브라질 정부에서 문화 활동을 통해 그곳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찰들의 보호를 받아 그곳에 들어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사를 했는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를 며칠 앞두고 황 작가의 〈마당을 나온 암탉〉이 영국의 워터스톤즈(Waterstones)에서 뽑은 2014올해의 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올해에는 태국에서 출판기념회와 도서전이 열리며, 호주의 문학축제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번뜩이는 호기심과 사람에 대한 깊은 관찰을 통해 만들어낸 그의 작품을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본다.

이미지 제공 : 명필름

Topic
-
글 · 사진 편집실

2014년을 마무리하며 한의학연에서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뜸과 부항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혈액에 의한 오염의 우려를 해결해 줄
신개념 부항을 개발했고, 또 무릎 관절염
뜸 치료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위생 · 안전 걱정 없는 신개념 부항

무릎 관절염 뜸 치료 효과 입증

캠핑용 자바라 컵에서 착안한 신개념 부항 개발

부항치료는 음압을 이용해 어혈 등 노폐물을 제거하는 전통 한의학 치료법 중 하나이다. 전통방식의 부항은 단지모양의 용기 속에 불을 피우거나 뜨거운 물에 담가 공기를 팽창시킨 후 냉각될 때 발생하는 음압을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이러한 방식이 갖는 화상위험을 피하고 보다 간편한 시술을 위해 플라스틱 컵에 공기 펌프를 이용하는 부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부항은 몸속의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소화작용, 배변조절, 수면상태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 부항의 경우 피를 뽑는(사혈) 습식부항 시 부항컵이나 흡입기가 혈액에 오염이 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러한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회용 부항컵을 사용하거나 추가적으로 세척 · 살균 과정을 거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편의성이 낮은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학연 이상훈 박사팀이 오염에 따른 기존 부항의 위생과 안전문제를 대폭 개선한 신개념의 '밀폐형 일회용 부항캡'을 개발했다. 이 부항캡은 기존 부항컵 안에 장착되어 환자의 피부와 기존 부항컵, 흡입기 간의 접촉을 완전히 차단한다. 사용 후 캡만 교체해 사용하면 사혈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항기의 오염은 물론 환자의 감염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방식이다.

본 개발품의 작동 원리는 부항을 시술할 때 공기 흡입기로 (1)부항컵 내부 공기를 흡입하면 (2)캡이 부항컵 안쪽으로 당겨져 펼쳐지게 된다. 이로 인해 (3)캡 안쪽 공기압이 낮아져 (4)캡과 직접 맞닿은 피부도 당겨지면서 압력이 피부에 전달되는 원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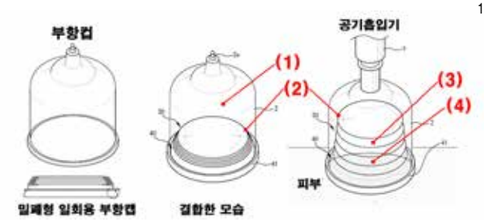
향후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한의원에서 보다 안전하게 부항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부항의 오염을 통한 감염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위생문제 개선 외에도 캡의 부피가 작아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제조공정을 단순화해 생산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밀폐형 일회용 부항캡'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14 보건신기술(New Excellent Technology, NET)'로도 선정됐으며, 지난 11월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에서도 소개돼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현재 기업과 기술이전 마무리 단계에 있어 상용화도 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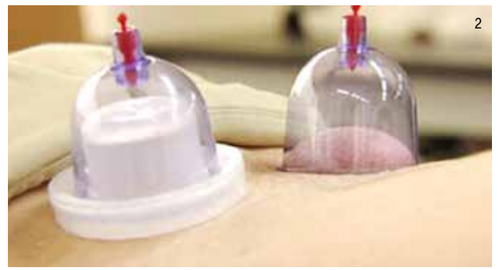
이상훈 박사는 2009년 첫 특허를 출원한 이후

1



1. '밀폐형 일회용 부항캡' 원리 2. 밀폐형 일회용 부항(왼쪽)과 기존 일회용 부항의 시술장면

2



기업의 요청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해왔다. 2011년에는 보다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개량 특허를 출원하고, 2013년에 최종 제품을 개발해 현재는 중국, 일본, EU에서 특허 취득을 완료한 상태다.

부항기 시장은 국내에서도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08년 29억 1,000만원, 2010년 56억 원, 2012년 94억 4,000만원으로 늘고 있다. 연간 부항술 요양급여 역시 크게 증가하는 추세로 2008년 583억 원에서 2010년 1,121억 원, 2012년 1,889억 원. 2012년 급여규모는 2008년에 비해 3.3배정도 늘었다.

무엇보다 부항 술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꾸준히 사용돼 전통의술로 해외 시장에서도 확산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부항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중의학 선진화에 따라 일회용 침이 보급되듯이 일회용 부항의 보급도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 부항 시연 중인 이상훈 박사
4. 기존 일회용 부항컵에 부항캡을 장착한 모습

무릎 관절염 뜸 치료 효과, 임상연구로 과학적 입증

무릎 관절염은 관절강내 염증부터 연골퇴화, 근육기능의 약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통증을 비롯해 일상생활 내에서도 몸의 기능을 제한하며 불편함으로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생활관리, 운동요법, 약물치료, 수술 등의 치료법이 있지만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예방적 치료법이나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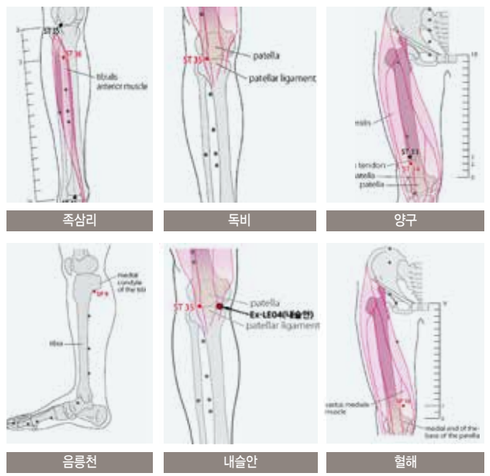
이에 각국에서는 관절염 환자의 통증을 낮추고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을 최대한 회복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치료법이 시도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침과 한약, 뜸 치료 등이 전통치료법으로 활용돼 왔다.

이런 가운데 한의학연 최선미 박사팀이 전국 3개 거점 한방병원과 함께 무릎 관절염에 대한 뜸 치료 효과 임상연구를 실시해 골관절염지수 평가 결과 25.6% 개선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한의학연 임상연구센터, 가천대 길한방병원,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세명대 제천한방병원이 함께 참여했다. 임상연구는 방사선 검사로 무릎 한쪽 또는 양쪽 관절염 확진 판정을 받은 21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뜸 치료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 110명과 뜸 치료군 102명으로 나눠 실시됐다.

대조군은 뜸 치료 없이 환자 각자 평소 관리하던 방법대로 가벼운 운동, 스트레칭 등 자가 운동요법이나 온찜질, 파스를 붙이는 일상관리가 이뤄졌다. 뜸 치료군은 일상관리 외에 뜸 치료가 추가로 실시됐으며 관절염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족삼리, 독비, 양구, 음릉천, 내슬안, 혈해 등 6군데 혈자리에 4주간 주3회 총 12회 치료가 실시됐다. 특히 환자 개인마다 무릎에 아픈 부위가 있으면 통증 부위의 최대 2군데 아시혈(더욱 민감하게 느껴지는 지점)을 추가해 맞춤형 뜸 치료로 진행했다.

5



5. 치료군에 사용된 뜸 치료 혈자리

뜸 치료군과 대조군의 평가는 임상연구 시작 시점(1주차), 4주간 뜸 치료 종료시점(5주차)과 종료 후 8주 뒤 시점(13주차)에 각각 치료 효과를 평가했다. 평가에는 골관절염지수(WOMAC)[1]와 삶의 질 측정 등 일반적으로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평가 방법이 활용됐다.

그 결과 일상 관리를 실시한 대조군의 경우 1주차, 5주차, 13주차 골관절염지수가 각각 34.16 → 33.6 → 34.69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뜸 치료군은 34.15 → 25.42 → 26.7로 1주차 대비 25%이상 개선되고 치료 후에도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임상 연구결과는 미국 공공과학도서관 학술저널인 '플로스원(PLOS ONE, 피인용지수 3.53) 2014년 8월호'에 게재되며 세계적으로 뜸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게 됐다.

연구 책임을 맡은 최선미 의료연구본부장은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뜸 치료의 임상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큰 의미"라고 밝히며 "침, 뜸 등 비약물 치료기술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임상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의학연 이혜정 원장은 "한의학 치료기술의 우수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며 "한의학연은 국민들이 한의약 치료기술에 대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의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 골관절염지수(Western Ontario and McMaster Universities Osteoarthritis, WOMAC)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학과 맥마스터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관절염 측정 지수로 관절의 통증, 뻣뻣함, 관절 기능 등을 환자의 설문으로 평가해 0에서 96사이의 숫자로 나타내며 수치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하다. 임상적으로 16% 이상 감소시 의미가 있다.

글 채운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교수

사진제공 : 제주관광공사

나의 어린 시절 학교에서 매년 만들어
날리던 글라이더는 잘 날지 못 했었다.
어린 아이의 마음에도 하늘을 멋지게 나는
작은 비행기에 많은 꿈이 담겨 있었다.

20세기 초 라이트 형제가 인류의
영원한 꿈인 하늘을 날고자 하는 바람을
이룬 후 이제는 전 세계를 1일 생활권으로
누빌 수 있게 되었다.
반세기 전 달 착륙 후 암스트롱이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자국이나
인류에게는 거대한 도약"이라는 말을 남긴
후 이제는 우주여행은 먼 이야기가
아닌 듯하다.

제_주에서 피어날 작은 꿈을 위해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ICCMR 2015)

일시: 2015년 5월 13일(수)~15일(금) (3일간)
장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주관: 한국한의학연구원
주최: ISCMR(www.iscmr.org)
주제: Inspiring Future Healthcare-
The innovation ro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raditional and integrative medicine
(*창조적 계승과 융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운데 21세기 미래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가는 전통 · 통합의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1. ICCMR 2015가 개최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 작년 5월 미국에서 개최된 제9회 ICCMR

What is Life?
How is the answer relevant to traditional medicine?

Denis Noble
Oxford University, UK

Regulating CAM: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Heather Boon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The Pebble in the Pond:
Integrative Leadership and Transformative Change

Adam Perlman
Duke Integrative Medicine, USA

Evolutionary Symbiont
& Integrative Health Care

Wonchel Choi
Dankook University and Nexia Nano Cancer Institute(NNCI), Korea

Clinical Research Paradigm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in Real World

Liu Baoyan
China Academy of Chinese Medical Science, China

Evidence of Kampo medicine and government initiative on Integrative Medicine in Japan

Kiichiro TSUTANI
The University of Tokyo, Japan

The co-evolution of Tai Chi and biomedical research:
A model for integrative mind-body therapies

Peter M. Wayne
Harvard Medical School, USA

The Essentials for Acupuncture and Moxibustion Research in Korean Medicine : Key achievements and future considerations

Sunmi Choi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orea

며칠 전 워싱턴에서 개최된 44회 미국신경과학회를 다녀왔다. 개인적으로 7번째 참석인지라 익숙한 편이고, 꼭 만나고 싶었던 연구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돌이켜보면 2000년 연구자로서 아직 어린 내게 미래의 꿈을 심어주었던 학회이다. 태평양을 건너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갔던 재즈의 고향 뉴올리언즈, 그곳 컨벤션센터에서 만났던 학자들, 매일 매일 발표되던 수많은 연구와 열띤 토론들, 그리고 그 속에 담겨 있는 진정성은 내게 큰 울림을 주었었다.

당시 어색하고 서툴렀던 모습에 대한 기억들이 항상 나를 채찍질하며 달려오게 한 듯하다.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스스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부러웠다. 나는 또한 꿈꿔왔다. 한의학 연구 분야에서 과연 이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제10회 국제보완의학연구학술대회(ICCMR,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가 2015년 5월 제주에서 3일간 개최된다.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완대체의학 분야의 세계적인 학회로서 중국 청두를 제외하고는 아시아지역에서 개최된 적이 없었다. 세계적인 학회를 한국에서 유치한 것 자체가 경사스러운 일지만, 이에 걸맞은 매끄러운 학회 운영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오히려 역효과를 보일 수도 있다. 중국에서 진행된 몇몇 국제학회에서 느낀 실망감을 되살리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 성공적 국제학회 개최를 위해 첫째, 발표 초록 및 세션 구성에서 많은 이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상향식 구성과 수준 높은 연구의 질 관리를 위한 하향식 구성의 수준이 적절히 조화를 이뤄야 한다. 현재 2차 초록 제출 연장을 통해 많은 구성원의 연구 발표의 장을 제공하고 있고, 적절한 수준의 프로그램 구성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우리 땅에서 우리가 주최하는 학회에서 애써 해외 연자에게만 목맬 필요가 없다. 글로벌을 외치며 해외에서 학회를 개최하면서도 한국의 우수연구진에게는 무관심한 다른 학회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한다. 한국의 실력 있는 연구자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다.

셋째, 많은 연구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관심 없는 한의사 및 한의대생을 동원해서 머릿수를 채우거나 그럴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누구나 자신의 연구주제를 들고 와서 공유하고, 또 다른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에 따른 한방병원과 대학 및 연구소에서 구성원 참여를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올 봄 제주에서 만남이 이제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되어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번 워싱턴 항공우주 박물관에서 가져와 만든 7달러짜리 모형 글라이더는 생각보다 훨씬 멀리 날 수 있었다. 이제는 소리쳐 외쳐 본다. 날아라 우리 병아리들!

글 채윤병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경혈학교실 교수

맥 분석시스템 개발로 동·서양 의료시장 노린다

"요골동맥(손목 내측을 통하는 동맥)을 흘러가는 혈류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눌러보세요. 일정하게 흐르는 것 같아도 맥의 특성이 달라요. 기타의 현처럼 팽팽하기도 하고, 구슬이 부드럽게 굴러가는 것 같기도 하죠. 맥을 짚는 위치마다 장기의 건강상태가 연결돼 있어요"

김영민 · 의공학기술개발그룹 선임연구원

로봇 기술로 차원이 다른 맥진 시스템 개발

"한의학에서는 해당 부위의 맥을 통해 사람의 장부 건강상태를 알 수 있어요. 서양의학에서는 혈류의 특성을 이용해 심혈관계나 대사성질환의 건강상태를 분석하는데 지금 개발하고 있는 맥 분석시스템이 이런 역할까지 가능합니다."

한의학연 의공학기술개발그룹의 김영민 박사는 로봇공학자다. 한의학을 전공한 것은 아니지만 한의학연 내에서 하는 강의는 물론, 경희대 한의대에서 진행하는 특별강의까지 찾아다니며 맥에 대해 공부했다. 로봇과 한의학이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싶지만 우리 삶의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한다. 이것은 그가 한의학연으로 진로를 바꾼 이유이기도 하다.

그는 KAIST에서 휴먼로봇을 연구했다. 인간과 로봇이 터치, 음성, 감성 등을 교감하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연구하던 중 실제 사람에게 적용되면 좋겠다고 생각, 한의학연 과제에 합류했다. 김 박사는 "제 진로 전환에 의문을 가진 후배들이 맥진 연구에 대해 왜? 라고 질문하는데 정형화된 근거를 보여주며 설명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현상에 대한 기전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고 맥진기 연구에 가치를 느꼈다"며 이번 연구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 박사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는 '혈류역학과 맥진단학을 융합한 맞춤의학 맥 분석 시스템 개발'. 한의사의 손가락과 맥진 동작을 완벽히 재현, 고정밀도의 맥상파를 측정해 한의 임상 수준을 높이고 국민 보건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이번 과제는 ▲혈류역학 모델 기반 맥진 원천기술 개발 ▲지능로봇 기술 기반 능동형 맥측정 기술 개발 ▲맥진 임상콘텐츠 구축을 위한 맥상 판별 기술 개발 ▲지능형 인공 맥상파 재현 시스템 개발 등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중 '지능로봇 기술 기반 능동형 맥측정 기술 개발'의 연구책임자인 김영민 박사는 피부 밀착형 고분해능 맥센서와 정밀 혈관 가압용 지능 제어 기술, 3부위 가압 동기화 제어 시스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김 박사는 "현재까지 개발된 맥진기도 가능성을 보였지만 혈압, 심전도, 반복성, 정밀도 등 가야할 길이 있다"면서 "이번 개발과제의 핵심은 한의사가 맥을 짚는 손가락 부분에 로봇기술이 집중돼 있는데 손가락 움직임을 모사해 가압하는 매니퓰레이션과 유체가 흘러가는 것을 느끼는 센싱 기술 등 여러 가지 하이테크 기술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보다 융합된 맥진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손목의 요골동맥은 연성피부인데 로봇의 센서가 미끄러지지 않고 정확하게 혈관을 수직으로 누를 수 있도록 센서를 개발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기대하는 시장은 한방을 넘어 양방의 의료장비 분야까지 포함된다. 양방에서도 혈압계, 초음파를 이용한 의료 장비들이 있다.

김 박사에 의하면 현재 개발 중인 맥진 시스템은 혈관에 서서히 가압하면서 맥동이 튀는 것과 혈관을 달리 누르면서 맥동 형태가 바뀌는 것을 측정할 수 있는 능동형 센싱으로 기존 장비들과 차별성이 있다. 그는 "기존 맥진기와 차원이 다른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기존 맥진기를 내놓은 기업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시장 뿐만 아니라 혈류역학을 이용하는 양방의 장비와도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힐링에 머물다
–
글 · 사진 편집실

겨울처럼 낭만적인 계절이 또 어디 있을까.
소복이 내리는 눈은 세상을 하얗게 감싸 안고
우리를 추억의 시간으로,
낭만의 시간으로 되돌려 놓는다.
태백으로 가는 길은 산길의 연속이다.
굽이진 길을 넘을 때마다
번잡했던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는다.

낭만을 따라 떠나는 하얀 겨울여행 강원도 태백

1 '민족의 영산' 이라고 일컫는 태백. 흰 눈과 어우러진 정상의 주목군락지는 동화 속 설경을 연출한다

2

3

하늘 아래 첫 정거장 태백선 간이역

태백으로 떠나는 겨울여행의 낭만을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O-train(중부내륙순환열차)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철로 위를 달리며 기차가 만들어내는 음색은 절로 리듬을 타게 만든다. 일본이나 유럽의 특급관광열차 부럽지 않는 목조 느낌의 객실에 앉아 하얗게 김이 서린 창문을 쓱쓱 문질러 닦아내면 북유럽 부럽지 않은 순백의 풍경이 성큼 눈 속으로 들어온다.

O-train의 묘미는 다른 기차들은 잘 정차하지 않는 간이역에서 머문다는 것이다. '제천역'부터 '영월역', '민둥산역', 영화 "워낭소리"의 촬영지였던 '봉화역', 석탄이 가득 쌓여있는 '태백역'까지.

1일 권을 구입하면 하루 동안 언제든 원하는 역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할 수 있다. 태백 여행의 첫 시작은 하늘 아래 첫 정거장이라 불리는 '추전역'이다.

추전역은 해발 855m에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간이역이라고 해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계룡산보다 10m나 높은 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그 높이가 실감이 난다. 계룡산의 천황봉보다 높은 곳에 있는 간이역이라니. 그야말로 하늘 아래 첫 정거장이 아닐 수 없다.

추전역은 태백이 한참 탄광촌으로 번창하던 시절, 무연탄 수송을 위해 지어졌다고 한다. 험준한 산악과 협곡을 따라 태백선이 개통되었는데, 추전역은 건설공사 중 가장 힘들었다고 하던 정암터널을 옆에 두고 있다. 탄전도시로 호황을 누렸던 옛 시절을 그리워하기라도 하는 듯, 추전역에는 광산에서 채굴된 광석이나 석탄을 운반하던 광차가 노랗게 색칠되어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반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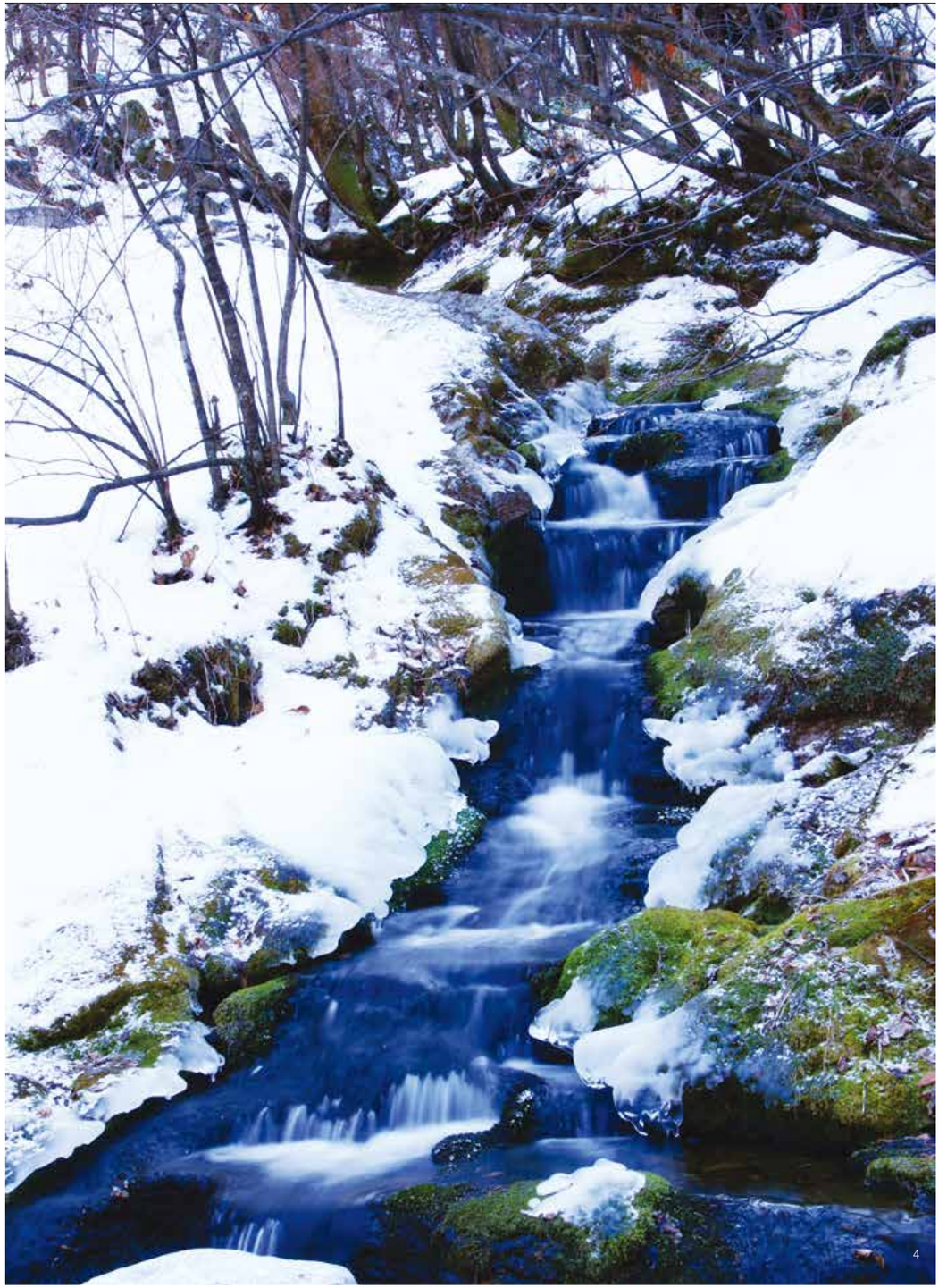
매봉산 바람의 언덕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한 풍력발전기와 풍차는 그냥 지나치기엔 아쉬운 포토존이다. 그래서 O-train이 정차하는 10분 동안 사진을 찍으려는 승객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다. 역사 안에 역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촬영 소품이 갖춰져 있다. 소품을 갖춰 입고 눈 내리는 철길을 바라보며 플랫폼에 서자 마치 영화 '철도원'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검룡의 몸짓과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추전역에서 나와 향한 곳은 검룡소다. 탄광의 도시, 산들이 병풍처럼 겹겹이 둘러치고 있는 태백이지만 이곳에는 우리나라의 젖줄인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있다. 바로 검룡소와 황지연못이다. 시내에 위치하고 있는 황지연못에 가기 전에 먼저 검룡소를 찾아간다.

흰 눈꽃을 피운 나무들이 차례를 모습을 드러내고, 운치 있는 나무다리를 몇 번 건너고 나니 검룡소가 모습을 드러낸다. 흰 눈 사이로 드문드문 고개를 내민 푸른 이끼와 자갈, 그리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소(沼). 이곳에서는 하루 2,000톤 가량의 지하수가 석회암 암반을 뚫고 나온다.

2, 3 웬만한 산봉우리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추전역. 이곳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는 풍경에는 여유로움이 묻어난다 **4** 1,300여리를 흘러 서해로 가는 물줄기의 시작, 서울의 젖줄이라 불리는 한강은 이곳 검룡소에서 시작된다



4

5 밤에 찾아가보는 황지 연못은 조명과 수줍게 내려앉은 눈이 어우러져 오묘한 매력을 자랑한다
6 겨울의 태백산은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이 눈을 날려 만들어낸 아름다운 설화를 자랑한다

검룡소에서 시작된 물줄기는 개울을 이루고, 골지천을 지나 조양강으로, 또다시 동강, 충주호, 남한강을, 북한강을 흘러 10일 후면 한강에 다다른다고 한다. 514km나 되는 대장정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전설에 따르면 서해의 이무기가 용이 되고 싶어 강을 거슬러 올라왔다가 이곳에 머물고 있다고 한다. 검룡소라는 이름 역시 전설에서 비롯되었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밤에는 별빛이 머물고 낮에는 햇빛이 머무는 이곳에 잠들어 있다는 그가 사뭇 부러워진다.

낙동강 천 삼백리 예서부터 시작되다

어두어지기전에 서둘러 걸음을 재촉한다. 다음 목적지는 황지연못. 태백시내 중심부인 황지동에 있는 연못은 태백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통 강의 발원지들이 산이나 계곡에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 2대강인 낙동강의 발원지가 주택가와 상가들이 모여 있는 시내 중심부에 있다는 것이 색다르게 느껴진다. 겨울이면 이 곳은 태백눈꽃축제의 장이 되기도 한다.

"낙동강 천 삼백리 예서부터 시작되다" 공원 입구에 당당히 서 있는 비석은 도시에 있는 이 작은 연못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낙동강의 시작임을 알려준다. 황지연못에서는 매일 5,000톤 정도의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와 1,300리에 달하는 낙동강을 향해 달려간다고 한다.

연못 한가운데는 동전을 던져 넣어 행운을 점쳐볼 수 있도록 그릇이 놓여 있다. 동전이 들어가는 위치에 따라 평생행운, 오늘행운, 올해 행운을 알려준다.

겨울의 낭만을 찾아 떠나온 여행. 어느덧 연못 주변으로 조명이 켜지고, 어스름한 어둠이 내려앉은 이곳은 나무에 피어오른 눈꽃과 함께 환상적인 분위기로 변신한다. 아쉽게 흘려버린 한해를 정리해 추억의 앨범에 담는다. 눈부시게 수려한 태백의 설경처럼 반짝거리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연못으로 동전을 던져본다.

01 태백산눈축제 2015

2015년 1월 23일부터 2월 1일까지 열리는 축제. 세계 유명 눈조각가들과 국내 조각가들이 선보이는 대형 작품은 물론, 다양한 테마 눈조각, 얼음조각 등이 환상적인 설원의 풍경을 만든다. 황지연못 일대에서 펼쳐지는 빛과 얼음의 축제와 더불어 은하수와 루미나리에가 만드는 별빛의 세계를 만날 수 있다.

02 태백 구와우 마을

구와우 마을의 해발 800~900m에는 '고원자생식물원' 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멸종돼 사라져가는 우리 꽃과 식물을 볼 수 있다. 또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바라기 밭이 있어 8월에는 해바라기 축제가 열린다. 100만 송이의 해바라기들이 바람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은 상상 그 이상의 감동을 준다.
-문의: 고원자생식물원 (033-553-9707)

03 태백 닭갈비

태백지역의 닭갈비는 육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골과 더 비슷하다. 고구마, 떡, 냉이 그리고 면 사리와 함께 쇠판에 육수를 부어 끓여먹는다. 기름기가 적어 맛이 담백하고, 남은 국물에 볶아먹는 밥 또한 별미이다.

사진제공: 태백시, 한국방문위원회 , 코레일
교통 및 숙박 정보: 태백관광 (http://tour.taebaek.go.kr/site)

-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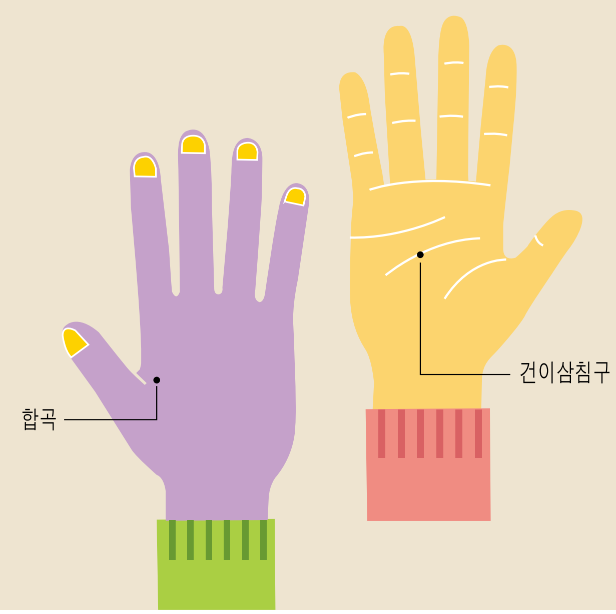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와 한의학

사람의 몸과 마음은 연결돼 있다. 그래서 때론 마음의 병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기도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속병을 흔히 울(鬱)화(火)병이라 표현하는데 이는 답답하게 막혀있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뜻이다. 답답한 것은 뚫어주고 치밀어 오르는 화는 그 열을 식혀줘야 한다.

01 몸을 병들게 하는 마음의 병 '스트레스' 바로알기

스트레스는 참다가 쌓이고 막히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를 한자로 울체(鬱滯)라 하는데 답답하게 막혀 있다는 뜻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소화불량이 가장 흔한 예인데 정신적 압박으로 인한 외부요인이 쌓여서 위와 장의 활동을 방해해 소화흡수력 약화를 초래한다.
물론 누구에게나 소화불량증세는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하는 고(高)스트레스 직업군을 가진 사람은 만성 소화장애의 치료방법을 울체에 근본해 접근해야한다.
울체의 경우 막힌 기혈(氣穴)을 뚫어주는 침 치료는 혈자리 자극을 통해 위장기능의 운동력과 기능을 향상 시켜준다.
경락 역시 울체를 풀어주는데 도움이 된다. 손바닥 가운데 있는 '건이삼침구'부위를 자극해주면 위장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손등을 위로 하고 손바닥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뿌리 뼈가 겹치는 부위에 있는 '합곡'을 자극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급성 위장장애인 경우 침과 경락치료 1~2회 만으로도 증세가 완화됨을 경험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는 마치 장애물로 인한 도로병목현상과 비슷한 이치인데 도로 위의 장애물을 치우자 통행이 원활해지는 것과 같다.
하지만 울체로 인한 스트레스의 근본적인 치료는 스트레스원을 없애주는 것이다. 도로 위에 떨어진 장애물을 치울 수는 있지만 누군가 도로 위로 끊임없이 장애물을 던진다면 근본 해결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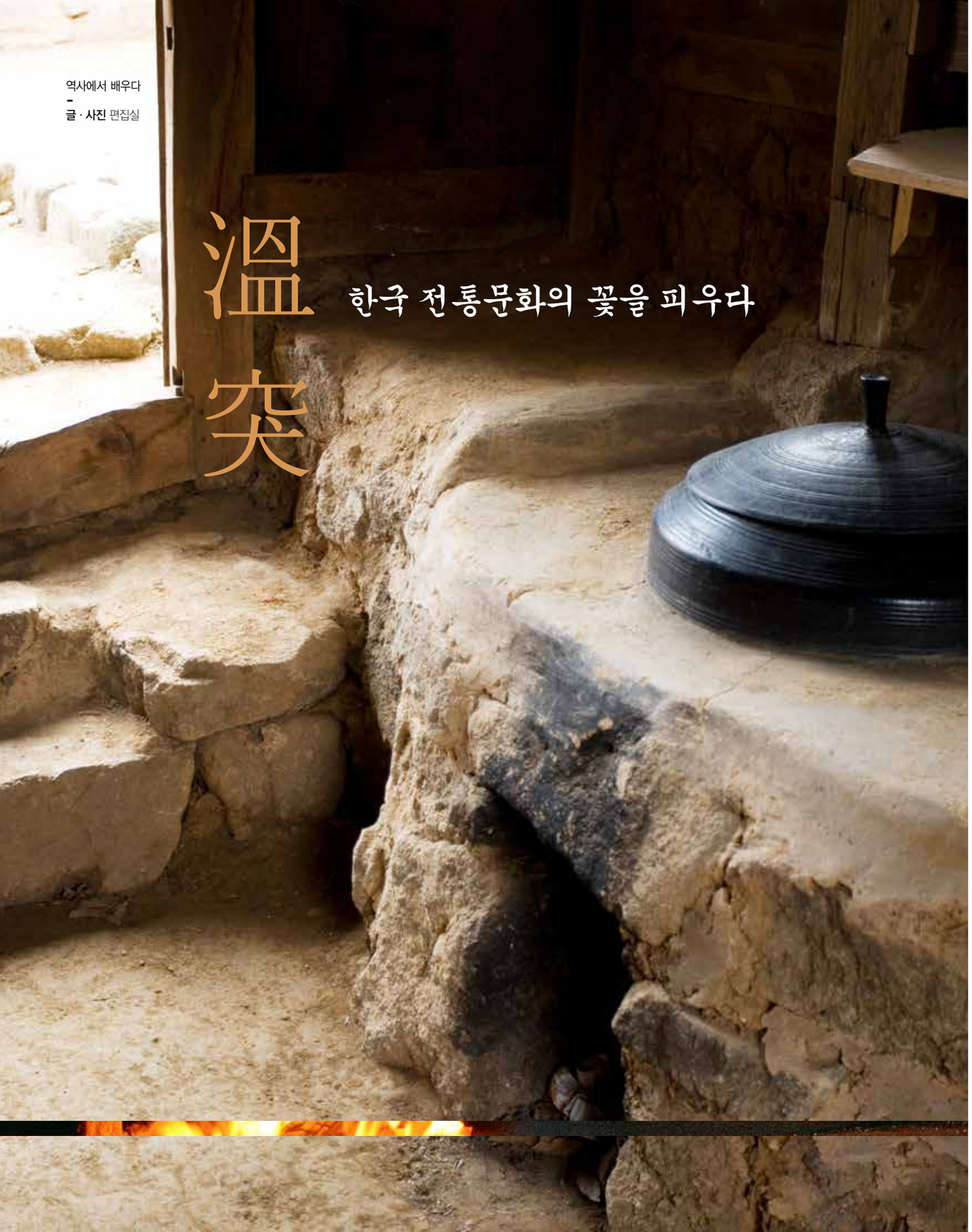
손바닥 가운데 있는 '건이삼침구'부위를 자극해주면 위장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손등을 위로 하고 손바닥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의 뿌리 뼈가 겹치는 부위에 있는 '합곡'을 자극해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



급성 위장장애인 경우 침과 경락치료 1~2회만으로도 증세가 완화됨을 경험하는 경우도 꽤 있다. 이는 마치 장애물로 인한 도로병목 현상과 비슷한 이치인데 도로 위의 장애물을 치우자 통행이 원활해지는 것과 같다.

02 마음에 불붙은 분노의 불-화(火)병

'억울한 마음을 삭이지 못하여 머리와 옆구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과 더불어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병'이라는 화병. 그 병의 원인과 증상은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고통은 짐작이 갈만큼 흔하면서도 참기 힘든 병이다.
화병증상으로는 불안, 초조, 우울, 신경과민, 자신감 저하 등이 있고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안면홍조, 메스꺼움, 소화불량, 변비, 가슴 두근거림, 손발 저림, 가슴이 답답한 증상 등이 있다.
화병의 경우도 울체와 비슷하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화재로 인한 도로병목현상과 비슷하다 할 수 있다. 불이 났으니 꺼야 하고 남은 연기와 가스와 재도 치료해야 한다.
또 이러한 화병이 만성이 될 경우엔 혈압을 상승시키며 고혈압이나 중풍 같은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불길을 잡지 못하면 더욱 커져 솟구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화병에는 불을 끌 천연물 약재를 통한 치료가 효과적이다. 이때 많이 사용되는 약재가 열을 내리는 성질을 가진 황금, 석고, 치자, 시호 등인데 황금은 가슴의 열을 내려주고 석고는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불길을 꺼주며 치자는 심장에 열을 내리고 시호는 간의 열을 내린다. 한의학에서 분노를 주관하는 기관은 간이다. 간의 기능이 저하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간을 조화롭게 하는 한약, 공진단, 인진환, 침향원 등이 도움이 되고 국화차, 당귀차, 금은화차를 마시면 좋다.
초근목피로 연명해도 내 마음이 편하면 모든 것이 흡족하고 진수성찬을 먹어도 내 마음이 뒤틀리면 만천하가 불편하다. 만사형통 멀리 있지 않다. 마음의 건강을 지켜 자신의 삶도 지키자.



溫突

한국 전통문화의 꽃을 피우다

경복궁 아미산의 굴뚝. 육모의 각 모서리마다 사군자 · 십장생 · 귀자무늬 · 봉황 · 귀면(鬼面) · 당초문(唐草文) 등으로 네 가지의 무늬를 새긴 부조물을 부착했다. 굴뚝이지만 뛰어난 구조물로 평가되며, 당시의 조형적인 기교를 잘 표현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난방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요즘처럼 한파가 이어지는 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따듯하게 데워진 시골집 아랫목이 아닐까 싶다.
뜨뜻한 아랫목에서 누워 있으며 매서운 겨울바람에 얼어붙었던 몸이 사르르 녹아내려 어느새 단잠을 청하게 된다. 방바닥 밑에 깔린 널찍한 구들장에 불을 넣어서 열의 전도를 이용한 난방법인 온돌은 김치와 함께 우리 선조들의 과학성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이다.

다양한 기록 속에 등장하는 '온돌'

온돌에 대한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중국의 『구당서(舊唐書)』의 [동이전] '고려(고구려)조'에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고구려인들의 주거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거처는 반드시 골짜기를 의지하여 지었고, 지붕은 띠나 풀로서 이엉을 지었으나 불사(佛事)나 신묘, 왕궁, 관아만은 기와지붕을 하였다. 겨울에는 긴 갱(坑)을 만들어 따듯하게 난방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2006년 강원도 춘천 율문리에서 발견된 초기 철기시대의 주거지 유적은 완벽한 온돌시설을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온돌 발전과정을 이해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주축 건물이 있던 곳은 평면형태가 장방형(5.6×4.3m)이지만, 남쪽에 출입구 시설을 별도로 마련한 철(凸)자형이었고, 이러한 형태의 주거지가 그렇듯이 온돌은 본채 안채 동쪽과 북쪽벽면을 따라 'ㄱ' 형태를 이루고 있다. 아궁이와 부뚜막, 구들(고래), 배연시설(굴뚝)을 갖추고 있어 난방과 취사의 기능을 모두 갖춘 한국 온돌의 특색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일찍이 온돌의 우수성은 한국을 방문했던 미국의 과학자 퍼시벨 로엘이 1885년에 펴낸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를 통해 소개되었다. 그는 자신의 책에서 "온돌은 겨울철 방안을 따뜻하게 하는 일종의 화로 역할을 한다. 방 밖에는 난로용 구멍이 있는데 이것을 아궁이라 부른다. 불을 때면 열기가 마치 벌집처럼 돼 있는 미로를 따라 방바닥에 넓게 퍼진다. 아이디어가 뛰어나며 통풍장치를 보충하면 훌륭한 난방장치가 될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과학과 문화가 모두 담겨 있는 소통의 장

온돌은 열의 전도를 이용한 복사 난방 방식의 원리를 이용했다. 방바닥을 데우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들을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이다. 뜨거운 연기가 지나는 부분을 '고래'라고 하는데 구들은 이 고래 위에 놓인다. 이 고래에서 구들이 데워지는데 이때 열이 고래 전체에 골고루 가야 방바닥을 고루 덮여줄 수 있다. 보통 아랫목에는 두꺼운 돌을 놓고 윗목에는 그보다 얇은 돌을 놓는데, 아무래도 윗목이 열이 덜 가기 때문에 빨리 데워질 수 있도록 얇은 돌을 사용했다.

온돌은 단순히 우리 전통의 난방 문화를 넘어 다양한 문화를 파생시켰다. 온돌의 열기로 발효식품을 만들어 먹는 식문화, 아궁이의 가마솥에 탕을 끓여먹는 식문화, 또 실내에서 신발을 벗고 앉아서 생활하는 탈화좌식(脫靴坐式)의 관습 역시 온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또한 온돌은 오랫동안 한민족 생활 문화의 필수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온가족이 아랫목에 모여 앉아 정을 나누었고,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했다.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온돌은 구들 대신 온수 파이프가 깔린 개량 온돌로 변신해 활용되고 있다. 많은 전통주택건설기술이 첨단화에 밀려 사라져가는 동안에도 유일하게 살아남아 활용되며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정부는 우리 전통 주거문화인 온돌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생활과 정서를 속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온돌문화가 하루 빨리 세계에서 인정받기를 기대해본다.

글 박소영 사진 편집실

겨 울, 캠핑을 즐겨라

겨울캠핑 노하우

겨울은 캠핑을 좀 다녀봤다는
캠핑 고수들이 오매불망 기다리는 계절이다.
가장 낭만적인 캠핑이라 불리는 캠핑의 꽃,
겨울. 고수들이 꼭꼭 숨겨둔
겨울 캠핑 노하우를 알아보자.

경험이 재산이다

겨울 캠핑은 무엇보다 추위와 싸워야 한다. 그래서인지 캠퍼들은 겨울 캠핑을 캠핑의 최종 목적지라고 말한다. 그만큼 겨울 캠핑을 하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로 캠핑을 다니면서 캠핑 경험을 쌓아야 한다. 캠핑 사이트는 어떻게 꾸미고, 난방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직접 체험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수들의 경험을 습득해야 한다.

다른 계절과 비교해 겨울 캠핑은 사이트를 만들고, 철수하는 데 힘이 더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울 캠핑은 하나보다는 여럿이, 고수와 함께할수록 든든하다. 눈이 휘날리는 악조건 속에서도 재빨리 텐트를 칠 수 있을 정도로 캠핑 능력이 숙달돼야 겨울 캠핑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다.

장비는 준비할수록 좋다

'최소의 장비가 최고의 캠핑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지만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은 다르다. 어떤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칼바람이 몸속을 파고들기도 하고, 조용히 귓가만 스칠 수도 있다. 겨울 캠핑에서 가장 주요한 장비는 침낭이다. 취침 도구인 만큼 침낭은 캠핑할 곳의 상황을 점검하고 그에 맞는 걸로 준비하는 게 좋다.

겨울용 침낭은 비쌀수록 좋은 데 영하 20~30℃에서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한다. 침낭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매트리스다. 침낭이 아무리 좋아도 매트리스가 야무지지 않다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를 막을 수 없다. 매트리스 성능은 R밸류로 따지는데 겨울에는 R밸류가 3~5는 되어야 한다. 화목 난로나 전기담요, 스토브를 이용한 난로 등의 난방 장비를 갖추면 조금 더 따뜻한 캠핑을 보낼 수 있다.

잘 먹고 적당히 마시기

추운 날 야외 활동은 열량을 많이 필요로 한다. 몸 안의 연료가 고갈되면 체온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겨울 캠핑할 때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하는데 뜨끈한 찌개와 탕이 좋다. 요리할 때에는 한 가지 메뉴를 선택해 많은 양을 만든 다음 조금씩 데워 먹으면 허기는 물론 추위도 덜 느낀다.

캠핑하면 떠오르는 바비큐도 빠질 수 없는 요리다. 특히 겨울철에는 조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훈제요리가 제격인데 요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재미가 있다. 음식에 쓸 재료는 미리 손질해서 준비해야 한다. 겨울에는 물을 구할 수 없는 캠핑장이 많은 만큼 사전에 재료를 준비하는 게 필수다. 따끈한 청주만큼 겨울캠핑을 즐겁게 하는 거 없지만 술은 적당히 마셔야 한다. 알코올은 체내의 열을 빨리 빼앗아가기 때문에 겨울 캠핑에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게 좋다.

몸을 움직여라

추위에 몸을 웅크리는 게 당연하지만 일단 겨울 캠핑에 나섰다면 야외활동을 두려워하지 말자. 추위는 가만히 있을수록 우리 몸을 파고든다. 바비큐에 필요한 장작을 패거나 얼음을 녹여 물을 만드는 등 야외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추위가 조금 덜 느껴진다.

주변에 눈이 좀 쌓였다면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활동에 도전하자. 눈꽃 트레킹이나 눈썰매, 연날리기, 눈사람 만들기 등을 하며 겨울을 느끼다 보면 재미가 두 배가 된다. 이때 옷은 바람이 들어오지 않게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좋다. 양말을 신고 비니를 쓰면 보온효과가 높아지는 만큼 꼭 챙기자.

습기를 조심해라

겨울 캠핑의 최대 적은 추위지만, 잠잘 때는 습기를 주의해야 한다. 겨울에는 습할수록 춥기 때문에 텐트와 침낭 안의 습기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텐트는 환기가 잘되도록 천장 근처의 환기창을 열어 내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침낭에서는 땀을 조심하자. 침낭을 습하게 만드는 게 땀인 만큼 땀은 되도록 흘리지 않는 게 좋다. 침낭에서 잘 때 코와 입은 침낭 밖으로 내놓아야 한다. 날숨의 습기가 모이고 모이면 얼음이 된다.

참고 : 대한민국 오토캠핑장 302, 초보 캠퍼를 위한 완벽 캠핑 가이드 캠핑을 부탁해

TYPE 1
이것이 바로 겨울 캠핑

겨울을 온전히 느끼는 캠핑을 하고 싶다면 눈이 많이 내리는 곳으로 떠나자. 12월부터 1월 중순까지는 서해안에 눈이 많이 오고, 2월 중순에는 동해안에 큰 눈이 내린다.

▶ 무주 덕유대 야영장

겨울 야생캠핑지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무주 덕유대 야영장. 덕유산에서 가장 유명한 구천동 계곡에 자리했다. 적설량이 많고, 곤돌라를 타고 덕유산에 올라가면 눈을 밟을 수 있어 겨울에 캠퍼들이 많이 찾는다.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411-89
문의 063-322-3174

▶ 보령 나래뜰

서해안 대천해수욕장 근처에 위치한 보령 나래뜰은 서해안 고속도로 보령 IC에서 10분이면 갈 수 있다. 5분 거리에 대천항이 있어 사시사철 싱싱한 해산물도 맛볼 수 있다. 특별히 사이트 구분이 없어 비수기에는 원하는 만큼 사이트를 꾸릴 수 있다.

주소 충남 보령시 신흑동 647-2
문의 070-8270-8765

TYPE 2
겨울 캠핑도 안락하게

겨울 캠핑이 꼭 고생스러운 것은 아니다. 온수가 콸콸 나오는 샤워장을 갖춘 캠핑장은 물론 장비가 풀 세팅된 글램핑장도 있다.

▶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국내 최초의 오토캠핑장인 동해 망상오토캠핑장. 2002년 세계캠핑카라바닝 대회가 열렸을 만큼 리조트 못지않은 시설과 규모를 자랑한다. 고급스러운 고정식 카라반과 피크닉 테이블, 코티지 등이 어울려 이국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주소 강원도 동해시 망상동 393-39
문의 033-539-3660

▶ 양평관광농원 오토캠핑장

몸만 가면 될 정도로 양평관광농원 오토캠핑장은 이것저것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캠핑장 한 곳에는 글램핑을 즐길 수 있도록 데크 위에 리빙쉘 텐트를 치고 내부를 세팅해두었다. 침낭 아래에는 전기장판이 깔렸고 침낭 안에 깔 라이너도 제공한다.

주소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254번지
문의 031-774-9726

“재능기부로 함께 사는 세상 만들어요”

한의학연 재능기부

최근 돈이나 물건뿐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기술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는 재능기부가 확산되고 있다.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나 기업이 하는 고액의 현금성 · 물적 재산기부가 아닌, 개인이 가진 작은 재능과 전문성, 지식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기부문화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며 동참하고 있는 것.

개인, 동호회, 단체, 공공기관, 기업을 비롯해 변호사, 요리사, 교수, 연예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참여가 늘면서 재능기부의 종류와 대상도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복지, 교육, 의료분야부터 스포츠, 공연, 미술, 문화 · 예술 분야까지 다방면에서 재능기부를 통한 활발한 사회공헌활동이 이루어지며 우리 사회에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한의학을 활용한 재능기부

과학기술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각 기관이 보유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기반으로 과학기술을 활용한 교육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한의학연구원도 현직 연구자들과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 우리 민족의 전통 유산이자 지식재산인 한의학을 활용한 재능기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의학연 침구경락연구그룹 이상훈 박사는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신탄진고, 청란여고, 용산고, 우송고, 관저고 등 대전 지역 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직업소개 특강과 진로상담을 가졌다. 한의학을 전공한 이 박사는 한의학 관련 직업과 사회적 경험 · 성취에 대한 살아있는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미래 진로와 목표 설정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청소년 재능기부 봉사 모임인 ‘행복한 울림이 있는 특강’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을 위해 이 박사는 업무를 끝

한의학연의 다양한 재능기부활동(왼쪽부터 시계방향 : 지역고등학교방문특강, 낙도의료봉사, 새터민초청행사, 청주여자소년원 방문특강)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는 방문 학습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

마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특강 요청이 들어온 학교를 찾았다.

또 이 박사가 회장을 맡고 있는 한의학연 봉사동아리 ‘한의사랑’에서는 원내 한의학 전공 연구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매년 낙도를 방문해 섬 주민을 대상으로 한방의료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연 2회 청주여자소년원을 찾아 경락 두드리기를 통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사회 적응 훈련을 돕는 등 교육과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받기 쉬운 이웃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다.

직접 찾아가는 방문 학습프로그램

생활과학교실은 연구자, 과학자가 배움의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방문 학습프로그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13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된 과학 체험프로그램이다.

한의학연은 매년 초 · 중 · 고 및 지역센터 등을 방문해 한의학 특강 및 과학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한의학연 연구자 4명이 1일 교사로 나섰다. 침구경락연구그룹 김주희, 권오상 선임연구원, 한의의료기술연구그룹 이영섭 연구원, 인사총무팀 장혜선 행정원이 각각 대전 보문복지관 실버교실, 하늘꿈지역 아동센터, 유성지역 아동센터, 유성구 노인복지관을 찾아 어린이들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한의학 상식, 일상생활 속 유용한 혈자리 지압법, 겨울철 건강관리법 등에 대한 강연과 함께 어려운 한의 이론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신형장부도 퍼즐맞추기 게임도 진행했다.

2014 주니어닥터 프로그램

대덕연구단지를 무대로 펼치는 과학 행사도 있다. 대덕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보유한 과학기술과 인프라를 미래 과학꿈나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주니어닥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2008년부터 운영해온 국내 대표 청소년 대상 과학체험 프로그램이다. 대덕특구 기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과학기술을 체험할 수 있으며, 매년 여름방학 기간 동안 개최돼 전국의 청소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한의학연은 2014 주니어닥터 체험프로그램으로 요오드 용액, 사포닌 성분 반응을 이용한 한약재 감별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실습 전, 먼저 한약재 감별에 대한 이론과 원리를 학습하고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비슷한 한약재를 과학 실험을 통해 직접 감별하며 한의학 연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한의학이 어떤 과정을 거쳐 연구되고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되는지, 공학과 생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으며 미래 연구자로서의 꿈을 키워 나갔다.

국내 대표 청소년 과학체험프로그램 '주니어닥터'

재능기부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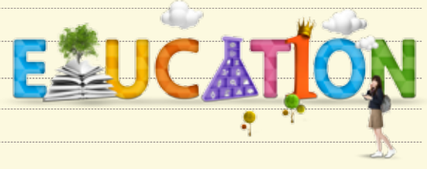
이 밖에도 한의학연은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찾아라! 어린이 허준', '어린이 본초탐사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KIOM 올래', '글로벌원정대', '학부생연구지원프로그램',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관(한의역사박물관, 한의과학관, 향약표본관) 운영, 전국과학축제 참가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다문화가정, 특수교육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KIOM 프렌즈' 등 연령 ·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운영하며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의 지식재산을 공유하자는 취지로 개발도상국 전통의학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의학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침 치료 기술과 도구, 체계화된 연구시스템 및 인프라, 교육 기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한의학의 해외 기부 활동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한의학연과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멘토가 되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말을 주기도 하고, 누군가의 선생님이 되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부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상호 공감을 통한 소통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과학기술 기부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과의 소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재능기부의 진정한 가치이자, 한의학연이 앞으로 재능기부를 위해 더 고민하고 참여해야 할 이유이다.



글 · 사진 편집실

“한의학 연구부터 일반 상식까지 쉽게 풀어냈죠”

KIOM 소셜 기자단 2기

블로그, SNS 활용해 쉽고 재밌는 한의학 정보 전해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KIOM 소셜 기자단 2기'가 공식 활동을 마치고 시상식을 가졌다.

KIOM 소셜 기자단은 한의학연이 2009년부터 운영해온 블로그 기자단이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공유 활동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작년 1월 소셜 기자단으로 새롭게 개편해 출발했다.

이번 소셜 기자단 2기는 한의대생, 한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 한의학 전공자 11명과 일반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주부 등 비한의계 9명, 총 20명이 4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 한의학 알리기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개인 블로그와 SNS를 통해 한의학 상식, 한방요리의 효능과 레시피, 한의대이야기, 한의학 연구성과 소개, 책 리뷰, 전문가 인터뷰, 한의전문지식 등 재밌고 유용한 한의학 정보를 직접 기사로 생산하고 공유했다. 그 결과 블로그 기사 200여건, SNS공유 590여건 등 총 790여건의 질 높은 한의학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전파됐다.

지난 12월 23일 연구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류호선(원광대 한의학과 본과 2학년) 학생이 영예의 최우수상을, 이성진(한방공중보건의)씨와 민남홍(우석대 한약학과 2학년) 학생이 각각 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류호선 학생은 ‘Nature는 왜 한의학에 주목했을까, 전통의학의 과학 연구 논문은 1년에 몇 편이나 나올까, 한의대 학생들이 SCI(E)급 연구를? KIOM URP’ 등 전통의학의 세계연구동향과 KIOM 소식, 한의대이야기 등을 주제로 블로그와 SNS를 통해 총 75건의 기사를 작성 · 공유하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우수상을 받은 이성진 씨는 ‘맥주의 원료 보리, 보리의 한의학적 효능은?’, ‘송년회 즐겨 찾는 메뉴 돼지고기의 한의학 이야기’, ‘근골격계 질환에 효과적인 추나의학’ 등 한의학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생활 속 유용한 한의학 지식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소셜 기자단 2기는 향약표본관 견학, 실험동물연구센터 랩투어, 의공학기술개발그룹 랩투어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가졌다.

기자단은 개인블로그와 SNS를 통해 한의학 기사를 발행하고 공유하며 한의학 알리기 활동을 펼쳤다.

KIOM 소셜 기자단 2기 수상자 인터뷰

류호선(원광대 한의학과 본과2년/ 최우수상)

“한의학 연구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작년 한 해 동안 KIOM 글로벌원정대, KIOM UPR(학부생 연구지원프로그램) 등 한의학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새로운 길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에 KIOM 대학생 참여프로그램에 하나씩 도전을 하게 됐는데 모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학업과 병행하는 것이 힘든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성적은 올랐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이 삶의 원동력이 돼 학업에도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정리해 알려줄 생각입니다.”

이성진(한방공중보건의/ 우수상)

“공중보건의를 하면서 환자들과 만나보니 한의학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올바른 정보, 양질의 정보를 직접 만들어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기자단 활동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수상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우수상까지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소셜 기자단 활동을 하면서 지인들에게도 더 적극 설명하게 됐는데 잘못된 한의학 지식을 바로 잡아주고 오해가 풀리는걸 보면서 보람이 컸습니다. 올해 4월이면 공중보건의를 마치게 되는데 임상분야에 가서도 환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블로그를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싶습니다.”

한 · 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 참석자 단체사진

한–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

한의학연과 중국중의과학원이 11월 26일(수) 중국 베이징에서 '2014 한 · 중 전통의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중국의 정부 간 협력의 틀에서 양 기관이 2011년 10월 상호 교류 · 협력 합의서 체결 시 매년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번갈아가며 개최하기로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심포지엄에는 각 세션별로 양 기관의 진단, 침구, 약물, 문헌 · 정보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신 연구 동향에 대해 발표했다.

한의학연은 중국과의 학술 · 인력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을 확대해 세계전통의학 발전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다국어 한의학 개설서(영역, 스페인역, 러시아역)

한의학 개설서 러시아어로 발간

한의학을 소개하는 한의학 개설서가 2007년 영어, 2011년 스페인어에 이어 2014년 러시아어로까지 번역됐다. 이번 러시아어 번역서가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에서 한의학을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학 개설서는 한국 한의학의 특징, 의료서비스 시스템, 한의학 이론, 치료법, 주요 인물과 고전 총 5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또 한의학의 역사, 음양, 오장육부, 경혈 · 경락 등에 대한 이론과 함께 침, 뜸, 기공, 추나요법 등 한의학의 다양한 치료법 등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등의 전통의학에는 없는 사상의학이라는 독특한 한국적인 소재를 소개함으로써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국어 한의학 개설서는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마당–출판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한의임상진료지침

표준화된 한의임상진료지침 나왔다

한의학연 이명수 박사팀이 요추 추간판 탈출증, 안면신경마비, 아토피 피부염 등 세 개의 질환에 대한 한의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배포에 들어갔다.

임상진료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이란, 의사가 환자의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체계적으로 개발된 지침이다. 이명수 박사팀은 한의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해 한의 의료현장에서 치료 수요가 높은 질환을 중심으로 위 세 가지 질환을 선정했다.

이번 한의임상지료지침은 그동안 한의 진료 현장에서 표준화된 치료 지침이 부족한 가운데 개발된 것으로, 앞으로 한의 임상 현장에서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한의 진료가 가능해져 한방 진료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임상진료지침은 한의학연 홈페이지(www.kiom.re.kr) 내 연구마당–출판물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현장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 개최

한의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한약 · 바이오 · 의료기기 분야 기술에 대한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가 11월 12일(수)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설명회에는 퇴행성 근육질환 치료제, 골질환 치료제, 천식 개선용 치료제, 항암 치료제 · 키트, 혈전성 질환 치료제, 피부 미백용 기능성 화장품, 침치료 시스템, 최신 부항기 등 한의학연이 주력하고 있는 연구분야의 사업화 유망기술 8건에 대해 소개하고, 연구책임자와 기술사업화 논의를 위한 1:1상담이 진행됐다. 추가로 7건의 기술에 대해 소액 · 무상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 '소액 · 무상특허 판매전'도 함께 개최됐다. 행사에는 총 87개 기업(관) 110명이 참가하고, 27개 기업 47건의 기술상담이 이루어졌다.

KIOM 우체통

〈한의학e야기〉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매거진입니다. 이번호에 대한 소감이나 바라는 점, 또는 〈한의학e야기〉와 함께 촬영한 사진, 퀴즈 정답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는 분들은 반드시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이번호 마감은 3월 6일입니다. (☎ 042 - 868 - 9274)

독자의견

1 **김성한(대전시 유성구 가정로)**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지난 20년이 메마른 땅에 씨를 뿌리고 밭을 일군 것이라면, 다가올 미래는 열매를 수확할 타이밍이 아닐까요? 사람으로 치면 스무 살 성인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나이와 조건을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

2 **윤형준(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내손안에 동의보감' 어플 잘 쓰고 있습니다. iOS 버전도 필요했는데 드디어 등록이 되었네요. 정말 말 그대로 손안에 동의보감이 들어왔네요. 메모기능이라든지, 인터넷 사전 검색 기능을 보면 개발자의 세심함이 느껴집니다. 다른 한의서들도 어플로 만들어 주시면 유용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3 **최동일(충남 부여군 부여읍)**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이룬 것도 많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도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길이 멀다 해서 안 갈수 없는 법. 주어진 오늘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가 결실을 맺을 거라 확신합니다.

응.모.방.법

1. QR코드로 응모하기
2. E-mail로 응모하기
   kiomevent@kiom.re.kr

퀴즈

1 최근 한의학연 최선미 박사팀이 무릎 관절염 증상 개선에 이 치료법이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다. 전통 한의학 치료법 중 하나로 쑥 또는 기타 약물을 피부의 특정 부위에서 태우거나, 태운 김을 쏘여 온열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이것은?

2 '이것'은 우리나라 전통 난방 시스템으로 열의 전도를 이용한 복사 난방 방식의 원리를 이용한다. 아궁이에서 땐 불기운이 방바닥 밑의 돌(구들장)을 데우고 뜨거워진 돌이 방 전체 온도를 높여준다. 이 장치의 이름은?

지난 호 퀴즈 정답은 〈동의보감, 채석강〉입니다.
정답자는 정문희(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박혜숙(경북 경주시 충효1길)입니다.

ICCMR 2015
The 10th International Congress on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Convened by KIOM
In association with International Society for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경기도 양평군 3개년 계획

세계 최고 수준의 전통 · 통합의학 학술대회 ICCMR 2015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학회 개요

- 일 시 : 2015년 5월 13일(수) ~ 15일(금) (3일간)
- 장 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주 관 : 한국한의학연구원
- 주 최 : ISCMR(www.iscmr.org)
- 주 제 : Inspiring Future Healthcare - The innovative ro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of traditional and integrative medicine
  * 창조적 계승과 융합의 가치를 중시하는 가운데 21세기 미래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가는 전통 · 통합의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2. 등록 및 후원제도

- 등 록 : 2015년 1월 23일(금)부터 가능
  ※ 자세한 내용은 www.iccmr2015.org에서 확인
- 후원제도

1) 공통 혜택

- ICCMR 2015 공식 홈페이지에 스폰서 로고 게재 및 자사 홈페이지 링크
- 학회 자료집 로고 삽입(컬러, 커버 안쪽) 및 모든 인쇄물 로고 게재
- 학회기간 중 로고 슬라이드 상시 상영 및 학회 가방 홍보물 삽입

2) 등급별 혜택

구분	Platinum Sponsor	Gold Sponsor	Silver Sponsor	Bronze Sponsor	Friends Sponsor
후원금액(만원)	2,000	1,000	700	500	200
전시부스(테이블)	2개	1개	1개	1개	-
등록티켓(3일)	5장	3장	2장	1장	-

※ 후원기관은 학회 기간동안 환영 리셉션, 만찬, 중식, 네트워킹 티타임 등을 선택하여 후원 가능합니다.
※ 후원 제도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ICCMR 2015 사무국(02-6288-6311)으로 문의 주시면 상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의 새로운 가치! Creative KIOM

스마트한 한의학 세상,
한국한의학연구원이 만들어갑니다.

한국한의학연구원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305-811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전민동 461-24) **Tel.** 042) 861-1994 **www.kiom.re.kr**